

# 국민68%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한신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운 재정으로 아직도 지방자치는 미완인 실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이고, 지방은 소외됐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도 높았다.

◇중앙에 치우쳐 지방은 소외=지방자치의 분야별 기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77.4%)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18.8%)보다 4배 이상(58.6%포인트) 높았다. 지방소외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87.8%)와 20대(81.5%), 40대(79.5%) 등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등 호남이 86.3%로 가장 높

## 지방소의 공감 비율 호남 가장 높아

## 68% “광역시장, 구청장 임명 반대”

았고,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9.3%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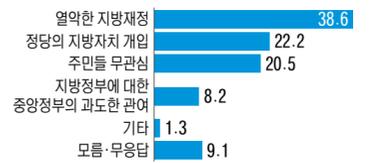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이 가장 큰 과제=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다.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응답자들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25.5%)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특·광역시장의 구청장·군수 임명 반대=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시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43.3%포인트) 많았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

## ■ 지방자치발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 ■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여부



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8.2%)가 ‘동의하지 않는다’(39.2%)는 응답보다 9.0%포인트 높았다. 광주·전라(56.5%)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39.9%)은 가장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60.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보름맞이 야간 고싸움놀이 지난 28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3회고싸움놀이 축제 전야제 행사에서 달집 태우기와 함께 야간고싸움 놀이가 펼쳐졌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전남도-FOM ‘F1 위약금’ 첫 협상

### 협상단 英방문 에클스턴 회장 등 만나

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F1 조직위)와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위약금’과 관련 첫 협상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박원화 F1 대회 조직위 정책고문과 고성석 F1 대회 조직위 본부장 등 협상팀이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FOM 관계자들을 만나고 최근 귀국했다. 협상팀은 위약금 협상에서 핵심 키를 쥔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팀과 버니 에클스턴 회장 등 FOM 관계자들 간에 어떠한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F1 조직위는 전남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로,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높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계속해서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당기간 F1 조직위는 FOM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6년 F1 대회 개최 여부도 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FOM은 F1 조직위에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물어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  
靑홍보수석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정무특보 주호영·김재원·윤상현  
홍보특보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



이병기 비서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김경재 홍보특보

박근혜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파격적으로 임명됐다. 또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현 국정원) 2차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기용됐다.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쪽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으로 옮겨온 김경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단행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이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국제관

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부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그간 거론되지 않은 현직 국정원장이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전격 발탁하는 ‘깜짝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정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외교안보라인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jkipark@

## 이병기 비서실장 외교관 출신… 박대통령 ‘이너서클’ 멤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너서클’에 속한 멤버로 꼽혔다.

외무고시를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지만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고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초대 주일 대사로 기용됐다.

지난해 6월 국정원장으로 전격 발탁된 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되며 국정원의 중심을

장악하게 됐다. 2004년 박 대통령이 ‘차떼기당’ 오명을 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을 치를 당시 ‘전막 당사’ 아이디어를 냈던 것도 그였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전수석비서관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며 경력을 쌓았다.

▲서울(68) ▲서울대 외교학과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근무 ▲민정당 총재보좌역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안기부 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대사 ▲국정원장

SK telecom

이제, 몇 배 빠른 LTE나  
어렵고 복잡한 LTE는  
있어서도 좋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BAND LTE

앞으로의 LTE는  
band 하나면 됩니다

5G를 향해  
band LTE

먼저 갑니다